

(주)셀리드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 청약 안내

- 청약일: 2019년 2월 11일~12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9년 2월 11일 (1일간)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일: 2019년 2월 11일~12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9년 2월 11일~12일 (2일간)
- 1주당 공모가액: 33,000원
- 공모금액: 금 39,600,000,000원 (공모주식수 1,200,000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9년 1월 29일
-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고객지원센터: 1588-2323, 1544-1544)

(주)셀리드가 다음과 같이 증권을 공모하오니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셀리드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보통주 8,210,889주 (납입자본금 4,105,444,500원)
3. 1증권당 공모가액: 33,000원 (액면가 500원)
4. 공모할 증권에 관한 사항
 - (1) 증권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2) 공모주식수: 1,200,000주 (신주모집 1,200,000주)
 - (3) 청약자격 및 배정비율

구분	청약자격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	(주)셀리드 우리사주조합원	9,270주	공모주식의 0.8%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투자자	950,730주	공모주식의 79.2%
일반청약자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정한 일반청약기준에 해당하는 자 (투자설명서 참조)	1,200,000주	공모주식의 20.0%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4) 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삼성증권(주)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삼성증권(주)	240,000 주	12,000 주	50%

주1) 일반청약자 대상 삼성증권(주)의 최고 청약한도는 12,000주이나 삼성증권(주)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24,000주(200%)까지 청약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청약자격 고객의 경우 6,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우대기준은 투자설명서 참조)

[삼성증권(주)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 주 이상 ~ 100 주 이하	10 주
100 주 초과 ~ 500 주 이하	50 주
500 주 초과 ~ 1,000 주 이하	100 주
1,000 주 초과 ~ 5,000 주 이하	500 주
5,000 주 초과 ~ 10,000 주 이하	1,000 주
10,000 주 초과 ~ 24,000 주 이하	2,000 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2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9년 2월 1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9년 2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19년 2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청약 및 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의 본·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셀리드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삼성증권(주) 본·지점

② 기관투자자 : 삼성증권(주) 본·지점

③ 일반청약자 : 삼성증권(주) 본·지점

(8)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미달)청약금 환불(추가납입)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19년 2월 14일(목)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9) 초과청약금 환불일: 2019년 2월 14일

(10) 주금납입기일: 2019년 2월 14일

(11) 주금납입은행: 신한은행 서울대학교지점

(12) 주권교부예정일: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13) 주권교부장소: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14) 투자자 유의사항

[㈜셀리드가 개발 중인 5 종의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

Pipeline	적응증	개발 현황
BVAC-C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항문암 등	현재 임상 2 상 중, 2014 년 NeolImmuneTech 사에 비임상단계에 기술이전, 2021 년 식약처의 조건부허가 득해 조기 제품 출시 목표
BVAC-B	위암,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등	현재 임상 1 상 중, 2019 년 상반기 임상 2 상 예정
BVAC-P	전립선암, 뇌종양 등	현재 비임상 단계, 2019 상반기 임상 1 상 예정
BVAC-M	흑색종, 폐암, 대장암 등	현재 비임상 단계, 2019 상반기 임상 1 상 예정
BVAC-Neo	다양한 암종 (완전개인맞춤형)	현재 비임상 단계, 2019년 연구자 임상 1상 예정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3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요건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상장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등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등급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2개 기관으로부터 A등급 & BBB등급 이상), 상장예비심사 청구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한국거래소로부터 지정받은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상장특례를 적용 받았습니다.

당사는 CeliVax 기반기술을 활용한 항암면역치료백신을 임상개발 중인 벤처회사로, 현재 고형암 치료용 5종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CeliVax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백신으로 인체내 모든 면역세포의 기능 및 기전을 활성화시켜 강한 치료작용을 나타내면서 부작용은 최소화된 의약품입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 중 BVAC-C는 임상2상 시험, BVAC-B는 임상1상 시험 중이며, BVAC-C는 비임상단계에서 미국 내 개발 및 판매 권리를 미국 NeolImmuneTech 사에 기술이전 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는 직접 임상을 수행하고 직접 생산 및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해외 시장은 기술이전으로 진출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제품 이외에도 비임상 연구 및 기초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임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사업구조에 따라 실제 판매허가까지의 임상시험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임상 실패 위험, 라이선스아웃의 매출 인식 불확실성, 연구개발비용의 증대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사업위험

가. 항암제개발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사업 분야인 항암신약 개발 사업은 개발 성공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제네릭 약물이나 바이오시밀러 약물과 달리 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의 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연구 단계에서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오랜 기간의 개발 기간을 필요로 하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특히 항암제 임상시험의 경우 표준치료에 실패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신약을 투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상 1상부터 환자 모집에[g1]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임상 완료 이전 사망 가능성이 있어 임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항암신약 개발은 일반 신약개발보다도 그 성공가능성이 낮습니다. 항암제의 FDA 임상 성공률(임상1상~신약 승인)은 비항암제(11.9%)와 전체평균 (9.6%)에 비해 절반 정도인 5.1%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암들은 여러 변형을 통해 각종치료제에 대한 극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개발의 성공확률뿐만 아니라 임상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항암제는 타 약물에 비해 불리한 조건입니다. 항암제의 임상시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타 의약품과 달리 영상학적 분석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필요로 하기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용의 측면에서도 타 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신약개발 단계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귀의약품 신청을 통해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로 제품 허가를 받고 제품 시판이 가능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기술이전을 하여 조기 수익화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신약 개발 사업의 높은 개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낮은 제품화 성공 확률 등 신약 개발 사업 고유의 특성이 당사의 사업 위험 요소로 작용하여 기존 의약품과의 차별화된 효능 입증에 실패하여 개발이 중단될 경우 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당사가 지니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 위험 및 성공 확률, 임상시험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독자적인 기술에 의한 First-in-class 면역항암제 개발 관련 위험

당사는 B세포와 단구세포를 기반으로 선천면역계와 적응면역계를 모두 활성화하는 기전을 가진 면역치료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파악한 바 과거 B세포의 항암치료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B세포와 단구세포를 활용한 상업화 목적의 개발은 당사가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B세포를 항암치료에 적용하고자 하였던 타 기관의 사례는, 그 연구 상 B세포의 항암면역반응 활성화 정도가 높지 않았으며 단클론항체, 배양 공정 등을 필요로 하였기에 상업화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제품은 항암면역반응의 활성화도가 높게 나타나며 동시에 배양 공정을 필요치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치료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B세포를 활용한 백신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논문을 세계 유수의 저널에 게재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 및 상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당사는 First-in-Class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사가 개발한 제품으로부터 창출 가능한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당사는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바, 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의 제품은 사업화에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 제품의 기술이전 또는 제품 판매가 지연 또는 무산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 면역항암제 개발에 따른 경쟁 심화 위험

당사의 Celivax 면역항암치료백신은 기존에 출시된 MSD의 키트루다나 BMS의 옴디보가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1~2개의 한정적인 암이 아닌 다양한 암을 타깃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역항암치료제 시장은 표적치료제 또는 화학항암제 시장에 비해 적응증에 대한 확장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 시장은 동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시에 동일 표적 또는 적응증에 대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될 수 있는 분야라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일차적으로 면역항암제에 해당합니다. 면역항암제는 잠재성이 큰 시장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글로벌 대형제약사를 비롯한 많은 경쟁업체들이 면역항암치료제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5개 면역항암제의 적응증만 고려하더라도 약 80여개의 적응증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은 보다 세부적으로, 면역항암치료백신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파악한, 당사의 주요 적응증과 관련된 국내외 면역항암백신의 개발 현황은 약 30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 외

유사 적응증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지는 아니하나 향후 당사의 적응증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 개발 또한 다수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각 적응증 별 적용되는 면역항암제의 수가 늘어나면 동일 적응증 내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는 당사 제품의 기전 및 제조 공정 상 차별적인 강점, 병용투여를 통한 호혜적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타 면역항암제의 개발이 반드시 당사의 시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유사한 치료방법 및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가 임상 개발에 성공할 경우 당사의 사업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새로운 치료 트렌드 등장에 따른 목표 시장 위축 위험

당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항암제는 제약산업 중에서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서,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용한 차세대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제3세대 항암 치료제로 일컬어지는 면역항암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인 CeliVax 항암면역치료백신또한 면역항암제로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요인 등으로 항암제 시장의 치료 트렌드가 변화한다면, 즉 더 효과적인 치료 수단인 새로운 항암제 계열이 등장한다면, 현재 우수한 치료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시장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마. 예방의학 및 조기 진단에 따른 시장 감소 위험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의 효용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 기기 분야의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 의료기기분야의 발전에 따라 당사가 목표 시장으로 삼는 면역항암제시장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동 백신의 접종이 더욱 보편화되는 경우 당사가 개발하는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 발전과 예방 및 조기 진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조기 진단에 따른 치료제 수요 감소, 예방 교육 및 자기 관리 강화에 의한 환자 감소가 당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당사의 향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의 제품은 국내 시장에 대하여는 직접 임상을 진행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하나, 해외 시장의 경우 전용실시권 등 형태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당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반면, 의약품의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을 진행할 경우 각 단계별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외 시장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수익모델로 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기 기술이전을 통한 리스크 감소와 다수의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한 지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파이프라인인 BVAC-C의 경우 2014년 미국 NeolmmuneTech사에 기술이전 하였고, 계약에 따라 NeolmmuneTech가 미국 내 개발 진행 및 출시 이후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BVAC-B, -P, -M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에 글로벌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VAC-Neo는 현재 기술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연내 기술이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기술이전 파트너의 전략 및 성향, 기술이전 시점에 확보한 자료의 양에 따라 기술이전 시점이 계획과 달리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이전 파트너사 관련 위험

당사는 기존 기술이전을 진행한 NeolmmuneTech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및 해외 회사와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사와의 관계는 당사가 해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파트너사의 사정에 의하여 당사의 신약 개발 계획이 지연된다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술이전한 파트너사의 임상 수행 능력, 파트너사 내부적인 이유로 파트너사가 임상 진행을 중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경우 수취 예정인 로열티 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향후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가 임상시험 실시 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임상시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에는 파트너사의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업무 위탁 기관 관련 위험

당사는 비임상시험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은 자체 연구시설을 통해 직접 진행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에 사용 중인 완제의약품은 GMP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인 (주)녹십자셀과 계약하여 위탁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에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기술이전을 진행한 BVAC-C의 경우 NeolmmuneTech사에서 현지 제품 생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이전을 통하여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경우에도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녹십자셀과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두 기관 모두와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기관이 생산한 결과에 대한 품질 시험 중 일부 항목을 당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품질 시험 시 당사의 약사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위탁 관련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 기술이전 진행한 NeolmmuneTech와 향후 기술 이전을 추진할 파트너 회사와도 협의를 통해 현지 생산 및 임상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파트너십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 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인력의 유출관련 위험

당사는 연구인력위주의 기술기반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지와 이탈 방지가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연구경험이 많고,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반면, 면역항암제 시장은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부터 대규모 제약회사들까지 다양한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우수한 인력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나, 향후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나아가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인력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핵심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핵심 인력이 국내외의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당사의 경쟁적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 탐색과 대체인력의 교육/훈련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인 면역항암제 개발은 연구개발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관리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사는 당사 보유 기반 기술의 특허 등록을 통해 당사의 미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당사의 강창울 대표가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인 "항암면역치료를 위한 면역내성 극복방법에 관한 연구"과제를 통하여 개발하여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양도 받은 특허입니다. 동 특허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각 국에 출원되어 있는 바,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외에 걸쳐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신뢰도,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반기술의 국내 특허의 만료는 2027년이나, 현재 당사가 계획중인 대로 특허 연장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허 기간이 5년 연장되어 2032년까지 기반기술이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의 만료는 2029년이나 마찬가지로 2034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당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혹은 제품 상용화에 실패하여 특허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특허는 만료되며, 동일 기반 기술의 경쟁 제품이 개발되어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특허를 회피한 유사 제품이 장기간의 비임상/임상 시험을 통해 자사 제품과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경쟁 제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특허권을 통한 견고한 기술진입장벽을 구축하지 못하여 사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BVAC-C와 BVAC-B는 임상 단계에 있으므로 임상시험의 수행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비임상단계를 진행중인 BVAC-P, BVAC-M, BVAC-Neo의 경우 비임상시험과 관련한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당사의 임상 시험이 수행되는 각 국가 고유의 정책 및 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률, 정책 또는 규제의 변동에 따라 임상 개발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개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주로 개발하는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고가약으로 분류되므로 국내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산업의 비임상 및 임상과정, 생산, 판매 및 약가 등과 관련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 시행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회사위험

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신약개발기업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18년 3분기 기준 당기순손실은 각 2015년 11.3억, 2016년 17.7억, 2017년 54.1억, 2018년도 3분기 누적 103.5억입니다. 다만 2018년 3분기 누적 기준 약 91억원, 2017년 기준 약 40억원의 손실은 당사가 과거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에

해당하는 건으로서 당사는 현재 동 전환상환우선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한 바, 동 건으로 인한 손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를 적용 받은 기업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완화된 상장심사요건을 적용 받았습니다.

당사는 향후 당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임상 단계를 진전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 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임상 2상 개발 후 제품을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2021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임상시험의 일정 내 종료 및 조건부 허가를 득할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영업이익 요건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 면제) 당사의 경우, 2019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24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임상 일정 지연 및 기술이전 계약 지연으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의 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관한 위험

당사는 B세포 및 단구세포를 활용한 백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정부 연구과제비를 차감한 연구개발비용은 2015년 5.7억원, 2016년 8.3억원, 2017년 11.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3분기 기준 10.0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BVAC-C의 임상 2b상 진입 등 임상 단계 진전 및 BVAC-M, -P의 임상 1상 진입 등 임상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라 상당 수준의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상황 하, 정부 연구과제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은 다소 어려우며, 당사는 3년간 정부 연구과제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용은 약 2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파이프라인의 확대 및 임상 단계 진전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각 파이프라인 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하는 개발비 인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비용을 자산화 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은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BVAC-C 파이프라인은 임상을 진행중이며 이 경우 조건부허가를 통해 임상2상 종료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신약의 매출이 시현될 경우 임상3상 개시승인시점보다 매출인식시점이 먼저 도래하여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산화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 시점까지는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화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상용화 되지 못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서 기 인식한 개발비가 비용으로 일시에 인식되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 임상 계획 및 매출 실현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품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자궁경부암 대상 BVAC-C백신의 임상 2상 종료 후 2021년 조건부허가를 통한 매출 시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전까지는 기술이전 매출이 주요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임상 계획이 지연되어 기술이전이 지연되거나, 혹은 임상 계획 지연 및 조건부허가를 위한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사의 매출 시현 시점은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과 적극적으로 임상 진행을 협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 임상 개발과 관련된 정부 과제 수행 시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와 관련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의 치료 분야에서 시급한 의학적 과제를 해결할 의약품의 개발과 심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하고 환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자료로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상기 요소를 고려한 바, 당사는 계획에 따른 임상 진행 및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발이 지연되거나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조건부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동사의 매출 및 이익 계획 달성 또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상업화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 증가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진행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등이 증가하여 적자의 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보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과 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 시현을 계획하고 있으나 임상 진행 계획의 지연, 기술이전의 지연 등에 따라 매출 실현 및 흑자전환 시점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수익성 및 성장성을 포함한 각종 재무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정부 보조금 수령 및 2015~2017년 55억원, 2018년 상반기 110억 등 유상증자를 통해 사내 유보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차입금 및 사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194.7%, 2016년과 2017년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2018년 3분기에 8.6%로 자본잠식을 해소하여 업종 평균 대비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 2017년의 완전자본잠식은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의 부채 인식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동 RCPS는 2018년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이에 완전자본잠식 또한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소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조속한 기술이전 및 제품 매출 시현을 통해 재무안정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 단계 진전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계획대비 기술이전 및 제품 매출 시현이 지연되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역시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위험

당사는 현재 자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임상시험에 사용 중인 완제의약품을 (주)녹십자셀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제품의 사업화 및 이를 위한 생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사 자체 GMP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곡 GMP 단지에 대한 총 예상 투자 규모는 2021년까지 기 지급한 토지대금 약 57억원과 향후 지출할 건물 약 100억원, 기계장치 약 20억원으로 약 177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2021년 동사 매출이 계획대로 발생될 경우 생산 CAPA 증설을 위한 기계장치 약 2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마곡 GMP 단지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약 197억원에 해당합니다. 동 설비에 대한 상각 기간 동안 상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임상 지연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매출 실현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임상 진행 등의 측면에서 재무적인 제약을 받아 신약 개발 계획이 지연되거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으로서, 통상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기 사업 위험 및 회사 위험에 기술한 요인들로 인해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임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다수의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한 정부지원금으로 당사가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 과제의 추가 수임에 실패 할 경우 비용 부담 증가로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3분기말 이후 재무적 변동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2018년 온기에 대한 가결산 실적 중 주요 항목을 본 증권신고서 상 기재하였습니다. 동 가결산 실적에 의하면, 당사의 당해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손실은 약 23.3억원, 당기순손실은 약 112.4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는 각 142.2억원, 7.0억원, 135.2억원 규모입니다. 다만 당사가 제시한 가결산 실적은 감사받지 아니한 수치이며, 동 재무수치는 향후 외부 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기타 투자위험

가.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2023년의 추정영업성과를 현재가치(2018년 말 기준/연 할인율 25%)로 할인한 금액에, 2018년 3분기말 기준 비교기업 5개사(메디톡스, 녹십자,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에스티)의 PER을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추정한 2023년의 예상 매출액은 약 799억원이며 전부 제품 매출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 예상 매출은 자궁경부암 104억원, 두경부암 76억원, 위암 423억원, 유방암 88억원, 전립선암 10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추정한 2023년의 추정영업성과는 각 파이프라인 별 임상 2상 후 조건부허가를 받아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연도별 투여율은 당해 발병자의 경우 1년차 4%, 매년 4%씩 증가하고 기존 유병자의 경우 4%의 투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환자별 단위 치료 금액은 1회 6,000만원, 환자당 1.5회 투여를 가정해 9,000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 추정 매출액은 799억원이고, 추정 당기순이익은 350억원입니다. 동 실적에 3분기말 기준 비교기업 5개사의 PER인 37.63배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은 44,231원이며, 최종적으로 할인율 29.9%~43.5%를 적용하여 주당 공모희망가액(25,000원~31,000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추정 영업성과 및 추정에 반영된 다양한 변수는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 실적이며, 당시의 과거 실적과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시 활용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하며, 비교기업은 회사와 규모와 인지도 등의 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결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의 사업구조는 당사의 중점 사업인 항암면역치료백신의 미래가치를 반드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상장 전 지분취득가액과 희망공모가액과의 차이 관련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2018년 4월 10일 당사가 수행한 약 110억원 규모의 증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장주선인은 당사의 주식 83,334주를 주당 12,000원에 취득 (총 약 10억원) 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산정한 금번 공모에 대한 희망공모가격(25,000원~31,000원)은 상장주선인의 주당 취득가(12,000원) 대비 2.1~2.6배입니다. 동 차이는 당사 BVAC-C의 임상 2상 진입 및 임상 1상

결과로 인한 당사 보유 파이프라인의 가치 증대, 기술성평가 및 상장예비심사 통과로 인한 상장 가능성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이 기 취득한 주식 83,334주는 상장주선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년 10월 18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상장주선인의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인 주식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상장주선인이 보유한 동 주식은 동조 동항 제2호의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에 해당하는 1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벤처금융 등 기관투자자 물량 매도 가능성 관련 위험

당사에 투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보유 주식 수는 약 1,832,042주(공모후 19.4%)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일(2018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공모분 제외)은 상장신청일(공모 이후) 기준 자본금의 각각 10% 한도까지 상장일로부터 1월간 의무 보호예수됨에 따라 1,141,356주(공모후 12.1%)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결론적으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보유 주식 수 1,832,042주(공모후 19.4%) 중 1,141,356주(공모후 12.1%)는 상장 1개월 후 출회 가능하며, 보호예수 대상 주식이 아닌 690,686주(7.3%)는 상장 직후 출회 가능하며, 벤처금융 등 전문투자자는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 상 제시한 희망공모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였기에 이익실현을 위해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금융의 투자방식은 일반적으로 조합의 형태로서 조합 설립 시 최초 설정된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고 투자 기간이 만기에 도달할 경우 해당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 주권을 모두 양도하여 손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 주식을 소유한 벤처금융 등 기관투자자의 물량의 매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지분 희석 및 물량 출회 위험

상장 시 공모 주식 1,2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0,303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9,441,192의 0.3%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30,303주(공모후 0.3%) 이외에, 2018년 4월 당사의 주식 83,334주(0.9%)를 기

취득한 사실이 존재하는 바, 상장 후 113,637주(1.2%)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주식 중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30,303주(0.3%)은 보호예수 3개월이 적용되며, 기존 보유분 83,334주(0.9%)는 보호예수 1개월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따라 30,303주(0.3%)는 의무보유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매도할 계획이나, 동 내규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기 보유 83,334주(0.9%)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 1개월 경과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연내 매각할 계획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상 상장일로부터 1년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최대주주 강창울과 특수관계인 3명(강동민, 이영윤, 오택권)은 2년의 추가적인 보호예수 기간을, 2대주주인 아미코젠(주)은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9,441,192주 중 최대주주 등 4인의 보유주식 2,020,000주(상장 후 3년), 기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691,000주(상장 후 1년), 아미코젠(주)의 자발적 보호예수분 759,375주(상장 후 1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 제3자 배정 주식 250,001주(상장 후 1년), 우리사주조합 공모분 보통주 9,270주 (예탁 후 1년),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분 보통주 30,303주(상장 후 3개월),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보유주식 중 1,141,356주(상장 후 1개월)는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매각제한 물량을 제외한 보통주 4,539,887주(공모후 48.1%)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며, 상장 후 1개월 경과 후 출회 가능한 물량은 1,141,356주(12.1%), 상장 후 3개월 경과 후 출회 가능 물량은 30,303주(0.3%), 상장 후 1년 경과 후 출회 가능한 물량은 1,709,646주(18.1%), 상장 후 3년 경과 후에 출회 가능 물량은 2,020,000주(21.4%) 입니다. 각 주주의 해당 보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7차례에 걸쳐서 총 381,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였고,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315,000주입니다. 공모 후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315,000주가 모두 행사될 경우 해당 주식 수는 총 발행 주식 수 9,756,192주의 3.23%입니다.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분포되어 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될 예정이므로 상장 이후 당사의 주식 거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시장가격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pm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pm 15\%$ 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보다 장중 가격변동폭이 클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 상장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심사 가능성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강창울 및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2,711,000주로 전체 발행 주식수의 28.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는 투자자 또는 기타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2018년 3분기말 이후 변동 사항 미반영 유의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2018년 3분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 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 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영향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고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 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집단소송 위험

당사는 국내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의하여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상법 상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가 추가적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재되지 않은 투자위험요소 검토를 통한 독자적인 투자판단 필요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투자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설명서 상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유의사항: 기타 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발행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발행회사의 사업목적, 재무정보,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http://dart.fs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42동 5층

주식회사 셀리드

대표이사 강창울